

현장을 무시한 인사행정, 졸속적인 직제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께서는 18대 노동조합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위기에 처한 생존터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지난 노조 선거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구성원들의 기대와 달리 일방적·독선적 경영 행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여전히 공동체의 생존 추구를 외면하고 파행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 동지들의 고통에 찬 의견들입니다. 공동체의 생존 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대학 측이 경영의 본질적 축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무능한 행정을 일삼고 있음에 노동조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초유의 정기인사 파행과 부실한 직제개편이라는 여론이 직원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노조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며 동지들의 뜻을 모아 향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인사가 지연·파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노조는 4주 전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상 제시한 공정성, 객관성,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인사제청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특히 전보인사에서 주요 부서들에 대해 현장 직무를 파악하고 현안을 청취하고 검토하였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비판하였고, 이에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제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부결을 의미하였는데, 재고된 조정안에 직원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서명이 미기재되어도 사무직원임용 규정상 제청되는 것은 가능하며, 인사위원회는 자문, 심의 기능이므로 대학 측의 원안대로 제청할 수 있으니 직원위원들의 서명을 종용하지 말고 진행할 것을 공문으로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합의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회의록에 의견을 적시하여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직제 개편안의 목적은 경영효율성 강화 및 예산 절감,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통폐합에 그치고, 그마저도 업무의 유사동질성 및 조직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었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조직체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통폐합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직원의 근무 조건과 직무적 특성, 보직 증감의 균형성은 고려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직원 보직자만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과연 조직생산물 향상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보직 감축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교원 보직도 비례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궁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7대 노동조합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학(총장)과 법인(이사장)에 단체협약 위배 사항을 지적하며 인사행정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공문(2021. 1. 28.)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파행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최근 제18대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및 관리·감독 철저 요청 공문(2021. 8. 18.)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직원보직 감축 재고를 강조하였으며 지난 학기 지적한 인사행정에 대한 단협 사항 준수를 감독할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법인과 대학 측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제 개편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헌신한 조합원들의 성과를 올곧게 평가하고 수용하는 공정한 인사행정,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여 최선의 업무성과를 담보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인사행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은 배고픔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民不患貧 患不均_맹자)”는 경구가 수십 세기가 지난 오늘, 뼈아프게도 대구대학교의 직원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고통과 걱정, 분노가 결속되고 있는 것을 노동조합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능·무의지 경영이 조속히 철거되도록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뜻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8. 19.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